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골동반과 비빔밥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생활은 각기 다른 지방문화가 어우러지는 재미가 있었다. 각자 학장 시절 음식 기억을 내놓곤 했는데 그게 또 어쩌나 신기하든지. 광주 출신 친구들은 상추튀김을 얘기해서 놀랐다. 대구 출신들은 화교들이 만들던 야키우동이니만두 추억이 별나게 들렸고, 인천 친구들은 해안 도시답게 소라고동 같은 걸 사먹던 기억을 떠올렸다. 좀 파격적인, 요즘 세대는 믿지 않을 것 같은 별스러운 추억도 있다. 비빔밥이다. 시내서 파는 그런 정식 음식이 아니라 교실에서 도시락을 함께 비벼 먹었다. 어디서 양푼을 구했던 것 같지는 않고 허드렛물을 받아 쓰던 청소용 물통이 아니었나 싶다. 그 음식이 정말 먹고 싶었다기보다는 소년다운 치기였다. 자기 도시락이 투입되는 걸 극력 반대하는 친구에게는 갈끔한다고 야유를 날리기도 했다.

수 있던 그 소박한 비빔밥은 구경이 힘들어졌다.

그때는 패스트푸드가 퍼지기 전이라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초고속 메뉴가 바로 비빔밥이었다. 미리 만들어 둔 나물만 얹고 고추장을 내주면 후딱 먹고 일어설 수 있었다. 서울 사람들이 전주식 고급 비빔밥을 먹기 시작한 건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81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의 비극을 덮기 위해 기획한 국풍 81을 여의도에 서 벌이면서 이른바 팔도음식 잔치를 함께 열어 남도의 화려한 비빔밥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90년대에 서울은 돌솥비빔밥의 시대를 맞았다. 돌솥에 밥을 짓고 여러 반찬을 정성껏 내어 비빔밥과 즉석 송송을 먹는 형식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여유 있는 고급 외식으로 비빔밥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 돌솥비빔밥은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도 빅 히트를 쳤다. 밥을 비비는 문화가 없었던 일본은 이 음식을 처음 대하면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한식당 주인은 직원을 시켜 밥을 직접 비벼주는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회고를, 재일 사학자 정대성 교수의 글에서 읽은 적이 있다.

비빔밥을 우리가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서 골동반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한다. 골동(骨董) 할 때 바로 그 골동(骨董)을 쓴다. 왜 비빔밥에 이 한자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설렁탕처럼 뼈와 고기를 넣고 오래 끓인 음식을 골동(骨董)이라 했듯이, 뭔가 이것저것 섞거나 오래 끓이는 음식에 골동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공통점만 희미하게 드러날 뿐이다. 또 골동품이 귀하듯, 비빔밥의 원조

보는 골동반도 값어치 높은 음식이었다. 소고기, 내장, 잣, 버섯 같은 재료를 기름과 간장으로 비비는 음식이니 간편한 대중음식일 리 없다. 물론 저자의 민중들은 골동반은 못 먹어도 비빔밥은 먹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것저것 있는데로 반찬을 넣고 비비는 음식은 굳이 기록된 자료가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닐까. 주막거리에서 흔하게 팔리는 음식이 국밥이었고, 어쩌면 두번 세 번 메뉴로 비빔밥을 팔았을 수도 있다.

지난 시대의 표적적인 비빔밥, 즉 스테인리스 그릇에 달걀프라이, 시판 고추장, 참기름을 넣은 것은 음식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명제를 충실하게 보여준다. 한때 고급 식기였던 스테인리스는 생산이 늘면서 대중식당에서도 장만할 수 있는 간편한 그릇이 되었고 밀가루의 대량 보급과 고춧가루 생산증대는 공장에서 싼값으로 만든 고추장을 시중에 퍼뜨릴 수 있었다. 여기에 산란계 산업이 성장하면서 70년대 들어 달걀이 더이상 짝푸러미에 고이 포장되어 농가에서 나오던 방식을 벗어났으니.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비빔밥은 육회비빔밥이다. 한때 꼬막비빔밥을 파는 프랜차이즈가 생기기도 했지만 남도의 육회비빔밥은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번 소개되면서 강력한 팬덤까지 생겼다. 한우를 생고기로 비비는 음식이 대중화된 건 역시 시대의 반영이다. 남도음식의 전국적 인기, 신선유통의 신뢰, 별미를 찾는 식도락이 빚어낸 신 비빔밥 문화인 셈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社說

양곡법 거부 정부, 쌀값 대책 손 놓을 건가

과채류가 고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산지 쌀값만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산지 쌀값은 골동반은 못 먹어도 비빔밥은 먹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것저것 있는데로 반찬을 넣고 비비는 음식은 굳이 기록된 자료가 없더라도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닐까. 주막거리에서 흔하게 팔리는 음식이 국밥이었고, 어쩌면 두번 세 번 메뉴로 비빔밥을 팔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 한 가마니(80kg)당 2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왔고 약속해왔으면서도 쌀값 하락에 손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권 회부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고 쌀값 폭락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입장에서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과 보관에 연간 3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엔 직권 상정한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 그런 만큼 더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

전남은 경기면적이나 쌀 생산량에서 모두 전국 1위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39년간 해마다 국내 쌀 소비량은 줄었고 앞으로도 감소세는 둔화될지언정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 정부는 쌀 한 가마니 20만원 보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친족간 범죄 막을 대책 없나

광주·전남에서 친족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돈 문제 등 경제범죄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에 달하면서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친족간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가정폭력)는 총 4592건이 발생했다. 전남도 상황이 비슷한데, 특히 83건의 친족간 절도범죄 수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의 절도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인 '친족상 도래(親族相監罪)'가 적용돼 절도죄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라진 상황이다. 친족간 절도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것인데, 전문가들은 가정 내 불화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퇴색하는 징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도 돈 문제 등 다툼이 많아진데다,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간의 단절이 유대관계를 약화하고 위계질서나 존경심이 무너지면서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친족간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족 스스로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친족상 도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친족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볼 때다.

의료칼럼

3차 신경통



박현정 조선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세수를 하는데 치아에 찌릿한 통증이 생겼어요.' '턱이 떨어지 나갈 것 같아요.'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에요.'

환자가 사용한 이런 말들은 3차 신경통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3차 신경은 12개의 뇌신경 중 5번째 뇌신경으로, 안면의 감각 및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이다. 이는 눈주위, 삼악(위턱), 하악(아래턱) 이렇게 안면의 세 부위로 나누어 분포한다. 3차 신경통 (Trigeminal neuralgia, TN)은 이 신경의 변성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가벼운 자극 즉 세수, 양치, 면도, 저작 활동 등에 의해 편측에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수 초에서 수 분간 짧게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양상이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되며 통증의 강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VAS (Visual analog scale, 0은 통증이 없음, 10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8~10 정도이다. 초기 3차 신경통의 경우 이러

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 일반 치통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행률은 인구 10만명 당 4~5명 정도이며 주로 50대 이후에 여성에게 호발한다.

주된 원인으로는 뇌 영역에서 3차 신경과 같이 주행하는 동맥 또는 정맥에 의한 압박으로 신경에 변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전형적 3차 신경통 (Classic TN)이라고 한다. 그 외 약 10% 정도는 3차 신경을 압박하는 종괴에 의해 유발되거나 중추 신경 축삭이 파괴되는 다발성 경화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2차성 3차 신경통 (Secondary TN)이다. 반면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3차 신경통 (idiopathic TN)도 있다.

3차 신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문진상 환자가 이러한 통증을 호소하고 우식, 치주질환, 염증과 같은 다른 감별진단 가능한 질환이 없어야 한다. 이때 대개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로 진단학적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약제는 카르바마제핀 (Carbamazepine)으로, 약을 복용한 후 통증의 빈도 및 강도가 상당히 감소되면 3차 신경통으로 진단될 수 있다.

3차 신경통으로 진단된 이후에는 2차성 3차 신경통을 배제하기 위해 뇌 MRI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40세 이하의 연령, 양측성 통증 발생, 감각 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2차성 3차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

다. 전형적, 특발성의 3차 신경통의 치료로는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카르바마제핀과 같은 약제를 1차 선택 약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지러움, 피로, 복시, 구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옥스카바제핀이 그 다음으로 사용되며, 라모트리진,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바클로펜 등의 약제를 증상 및 부작용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약물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약물치료로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술에는 3차 신경 차단술 (Trigeminal nerve block), 감마나이프와 같은 방사선 수술, 미세혈관감압술 등이 있다.

3차 신경통은 매우 극심한 통증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한다. 이러한 통증의 양상으로 감별은 어렵지 않으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증의 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감별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약물치료로 증상 개선이 어려울 때는 조기에 외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증상에 따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행한다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기고

병원선, 국비 지원 절실하다



최홍길 서울 선정교 교사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필자는 1년에 서너 차례 고향에 내려온다. 팔손을 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나날이 달라지는 섬의 환경을 살펴보고 싶어서이다. 우리 고향의 바닷가 부근에서 피아노섬 축제와 더불어 김밥 페스타 등의 부대행사가 얼마 전에 진행돼 수많은 외지인들이 즐거움을 만끽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즐거웠다.

병원선은 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배로서, 전국에 5척이 있다. 병원선을 소재로 해서 40부작 드라마가 제작된 적도 있고 최근에도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해서 이제 병원선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의 고향인 신안군에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있지만 병원이 없다. 따라서 갑자기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초미지급(焦眉之急)'의 상황이 벌어진다. 강풍이 불고 눈이 많이 내렸던 20여 년 전의 어느 겨울날, 사고를 당한 옆 마을의 환자가 배가 다닐 수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결과 생을 달리했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서 예전에 겪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육지와 많이 떨어진 도서 주민들은 아직도 그 어려움이 진행중이다.

신안군 안좌면 소속으로 부소도라는 섬이 있다. 썰물이 되어야만 어미섬인 안좌도와 소통이 가능한 낙도이다. 30여 명의 노인들만 사는 이곳은 진료소나 약국이 하나도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다. 이 섬과 같은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가 전남 지역에만 현재 80여 곳이 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섬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71년에 '전남 512호'라는 병원선을 도입했고 이후 511호까지 투입해 동서부 지역을 나누어 현재까지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한 해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치료받은 주민들 100% 가까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에 배를 타고 찾아가 환자를 돌보는 병원선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건만 각 병원선에 배치된 공중보건과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협압과 당뇨는 물론 치매·정신건강 상담도 진행한다. 5명 안팎의 전문 인력이 주민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치매 초기 검진 및 예방을 위한 인지장애,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낚은 낚씨와 빠듯한 일정보도 병원선을 받쳐 주는 주민들 때문에 힘이 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접한 신문의 사설에 따르면 국비 지원은 미미하고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몇 발짝만 움직이면 검기약을 살 수 있고 진료 또한 당장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섬 지역은 다르다.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일수록 낙후지 개발을 중요시하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의 병원선에 관심이 더 필요한 때이다.

無等鼓

과거 세금만큼 무서운 것은 없었다. 공지는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다.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 귀족의 세금은 탕감 해주면서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평민, 제3계급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루이 16세에 맞서 1789년 5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조병갑 '맛춤' 행' 사자성어다. 그는 무고한 이를 잡아 죄를 뒤집어씌워 보석금을 챙기는 등 악행을 일삼았

금을 걷는 과정에서 회계, 화폐, 문자 등도 함께 발달할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대적인 조세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 권력자들은 사차·전정 등을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걷다가 쫓겨나고, 치세에 성공한 군주들은 언제나 공평무사한 세금 징수로 백성을 편안케 했다.

2023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총세입이 예산 대비 37조원 감소하는 등 세금을 덜 걷었기 때

조세권 회피

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세 등을 낮춰주며 부자들 주머니만 채워준 것이 화근이다.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특히 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징수해야만 정점으로 치닫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부유층을 위해 조세권을 회피하고, 공공 재정을 임의로 간축해 국민을 어렵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과거 가렴주구와 뭐가 다르겠는가.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